

## 순천시, 동·하계 전지훈련지 '각광'

기후·스포츠 인프라·남도음식·교통여건 등 갖춰 시너지 극대화

1~2월 축구·야구·검도·유도 등 4개 종목 5000여 명 방문 예정



순천 팔마종합경기장 항공 사진

순천시는 지속적인 체육시설 공 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최적의

동·하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동·하계(12~2월, 7~8월)에 전지훈련 방문자 3만 1033명을 유치해 전남 전지훈련 최우수 시군으로 지난 9월 선정됐다.

시가 전지훈련 최적지로 각광받는 이유는 순천만국립공원, 순천만습지 등 우수한 관광자원과 온화한 기후, 쾌적한 스포츠 인프라, 맛깔난 남도음식, 편리한 교통여건 등을 갖춰 스포츠와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오는 1월과 2월

에는 축구와 야구, 검도, 유도 등 4개 종목의 대회가 순천에서 치러지며 약 5000명의 선수단이 순천을 찾을 예정이다.

특히 2월1일부터 7일간 열리는 '2020 전국 유소년축구대회'에는 전국의 유소년축구클럽 60개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시는 "다시 찾는 동계훈련장"으로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훈련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전지훈련장 제공, 지역 농특산 지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맞춤형 체력인증 서비스와 관광지 할인혜택 등도 제공, 타 지역과 차별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순천을 찾아오는 전지훈련단이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국립심혈관센터 호남권 설치 가시화

사업비 2억 반영...보건복지부 기본계획 용역

최종 확정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국립심혈관센터 구축 방안 연구 사업비 2억원이 반영돼 호남권 설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12월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심혈관센터 설치에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전남 상생공약으로, 2007년부터 전남도와 장성군, 지역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에서 호남권 유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17년에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9월부터 3월까지 '국립심혈관센터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연구용역 결과 인구 고령화구조에서 심뇌혈관질환 분야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국가적 예방 및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할 호남권 국립심혈관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센터 규모와 기능, 역할 등 운영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심혈관센터가 호남권 첨단 과학기술이 집적된 광주연구개발 특구에 설치되면 현재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총괄하게 된다.

## '어촌뉴딜300사업' 전남 37곳 선정...3년간 3591억 원 지원

박지원 의원 "목포 울도 포함"

해양수산부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전남에서는 목포 울도 등 37곳이 선정돼 향후 3년간 359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은 12일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에 목포시에서 신청한 울도(총사업비 127억원), 진도 2곳(218억6000만원) 등이 선정돼 3591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게 됐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 국책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어촌환경 개선사업이다.



박지원 의원

어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해상교통 시설 현대화, 어촌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어촌지역의 공동체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의 70%를 국가가 지원한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250곳이 공모사업에 지원, 해수부 심의를 거쳐 120곳을 선정했는데 탈락지 중 일부(전남 7곳)에 대해서는 여객선기항지 개선사업으로 최대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 광주시 '나눔과 연대' 상징

### 광주주먹밥 상품화 본격 추진

8곳 시범판매업소 선정

광주시가 나눔과 연대의 광주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광주주먹밥' 상품화에 본격 나선다.

시는 8곳의 주먹밥 시범 판매업소를 선정하고 전문가 레시피 11종과 시민 공모전 레시피 20종을 보급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판매업소는 2019 미래식품산업전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한 '맘스룩'을 비롯해 '행복한양림밥상' '다르다김밥주먹밥' '테스팅 노트' '광주주먹밥·오백국수' '산수모밀' '바무리떡볶이' '푸드타임' 등이다.

이들 업소는 시범 판매에 앞서 광주에서 보급한 레시피와 특성을 담은 개별 메뉴 등을 개발하고,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시는 향후 시민 반응과 주먹밥 판매현황 등을 확인해 광주주먹밥



판매업소를 재정비하고 메뉴 다양화를 추진하는 등 광주주먹밥 상품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일용 시 복지건강국장은 "8곳의 시범업소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광주주먹밥이 광주만의 맛과 멋으로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광주주먹밥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완도군, 도서지역 의료지원 성과 빛났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 수상

완도군은 지난 9일 제주에서 열린 '2019년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성과 공유대회'에서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유공자로 금일읍 사동·약산면 해동 보건진료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신지면 등고 보건진료소장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완도군은 2016년부터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도서 주민을 위하여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5개소, 보건진료소 8개소 의료취

약지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 현재는 18개 모든 보건진료소에서 원격 화상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의료 환경이 열악한 도서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화상원격진료 시스템을 도입했다.

보건진료소장이 보건진료소를 내방한 환자의 병력, 증상을 파악한 후 원격지의 의사에게 화상으로 협진하고, 환자는 의사에게 본인의 건강 상태, 질병에 대한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원도=김광수 기자

**올타리**

올타리는 그 만의 가치를 보존하고 가꾸어갑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농어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올타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안전중심 경영체계 구축**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공사 시설물 안전 관리는 물론, 공익적 기술 지원으로 국민안전에 책임지고 있습니다.

**재해대비 능력 향상**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의 현대화와 함께 '재해예측시스템' 운영으로 능동적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

'안전관리건설팀', '안전신고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깨끗한 농어촌 용수 공급과 생태계 보전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함께 농어촌의 고유 가치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KFE 한국농어촌공사**